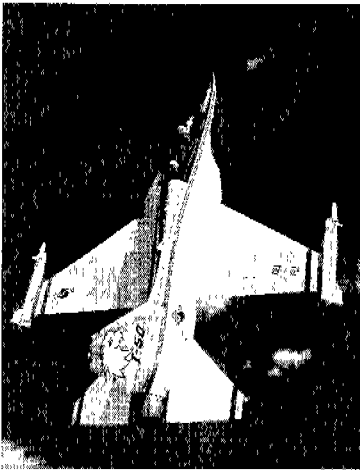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산업(주),

T-50/A-50 수출목표 3백억달러 전망

한국항공우주산업(주)(사장: 임인택)와 미국 록히드 마틴은 양사가 차기 전략사업으로 공동추진하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의 해외수출 목표가 2030년까지 3백억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동급 기종 항공기의 보유 및 운용현황, 노후 기종 교체시기 등을 조사해 수출마케팅 추진방향을 마련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와 방산물자 교역이 가능한 국가의 고등훈련기 시장 규모는 약 1,200대, 고등훈련기에 무장을 탑재한 경공격기의 시장규모는 2,300대로 총 3,500대의 신규 및 교체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예상수요중 경쟁기종의 항공기 성능, 군수지원체계, 훈련시스템 등 세부 비교항목을 기초로 종합평가한 결과, T-50 고등훈련기는 350~575대, 파생기종인 A-50 경공격기는 450~650대의 판매가 예상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수량으로는 총 800~1,225대, 시장점유율로는 23~35%, 금액으로는 약 3백억달러에 이르는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T-50 고등훈련기의 공동마케

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록히드 마틴사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향후 30년간의 항공기 판매전략 수립 및 이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오는 9월 출하예정인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는 각종 지상 시험과 시험비행 등의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2005년에는 한국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김현용 대리〉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선진국의 85% 수준

우리나라 부품·소재기업들은 선진국 대비 85%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産·學·研·政의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부품·소재산업 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가 「부품·소재육성특별법」 시행(01.4)을 계기로 전국의 중업원 100인 이상 부품·소재기업 1,299개사(응답자 815개 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품·소재산업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품·소재기업들의 설계기술, 신기술 응용능력 등 핵심 기술능력은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으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투자확대 및 전문인력양성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품·소재분야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대상업체들은 부품·소재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요산업과의 제휴를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필수적이며, 국산 부품·소재의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신뢰성인증 및 보장제도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이 예상과는 달리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소싱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먼저, 대상업체의 약 62%가 전체 매출액중 부품·소재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특화되어 있고 자동차부품외에는 OEM방식보다 자기상표부착방식이 우세(50% 이상)하며 판매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37%에 달해 글로벌 경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부품·소재산업 종합실태조사」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성품 위주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속에서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중업원 100인 이상 부품·소재기업을 전수조사하여 앞으로 관련정책 수립시 기본데이터를 제공한다는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자원부는 금번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부품·소재산업의 과제와 기업들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21세기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수립될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본계획」에는 기업과 정부, 학계가 공동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국산 부품·소재의 판로확대를 위한 신뢰성인증 및 보장제도 확대, 해외시장 개척과 선진기업과의 투자협력 등에 대한 종합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세계 항공기시장 공략으로 활로 모색

대한항공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항공기부품 수출 1억 달러 고지에 올라선다.

대한항공은 올해 항공기부품 수출 1억달러 달성의 해를 맞아 세계 항공기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공략을 펼쳐 수출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수출다변화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 항공기부품 수출 2억달러를 달성하고 기존 거래선과 최고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거래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량확대를 꾀하기로 하였다. 또한 100인승 이하 신규 소형 제트기 개발프로그램, 에어버스의 A380 초대형여객기 개발프로그램 등의 각종 국제공동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항공기부품 수출액을 지난해 실적 9천8백만달러 대비 33% 늘린 1억 3천만달러로 잡아놓고 있어 '86년 항공기부품 생산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1억달러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Embraer)사의 70~110인승 ERJ-170/190 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보잉사와 에어버스사 위주의 거래선을 탈피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캐나다, 독일, 일본 등지로도 신규 거래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해외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지금까지 수주한 총물량은 18억달러로, 이중 6억달러어치의 물량을 인도하였으며 12억달러 규모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은 '86년 4월 미국 보잉사로부터 B747기의 주날개 뒷부분에 달려 이착륙시 양력과 항력을 증대시키는 플랩(Flap)의 지지구조물인 플랩트랙 페어링(Flap Track Fairing) 300대분 납품계약을 따내면서 항공기부품 수출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초기 단순제작 수준에서 설계

를 비롯해 제작, 시험, 인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쌓아 B737, B717, ERJ-170/190 등 각종 항공기의 국제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보잉사에 B717기 기수부위(Nose Section), B737기/B747기/B777기 날개부품, 에어버스사에 A330기/A340기 동체부품 등을 제작해 수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방산사업에 참여해 국산 KT-1 기본훈련기의 중앙 및 후방동체, 캐노피(조종석부위) 생산을 맡고 있으며 추가생산이 예정돼 있는 F-16 전투기의 주날개, 후방동체, 수평꼬리날개 등의 생산을 맡고 있다. 이밖에 한국군과 태평양지역 주둔 미군 군용기의 정비창으로서 전력증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항공기 생산사업을 통해 대한항공은 지난해 2천4백85만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항공기부품 수출이 44%를 차지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항공기 생산부문에는 2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대한항공 김도훈 과장>

서울대, 디지털항공기술혁신센터 개소

지난 5월 16일 서울대학교는 공과대학 항공우주기술연구소내에 디지털항공기술혁신센터(DICAE: Digital Innovation Center for Aerospace Engineering)를 개소했다. 이는 다쏘항공사, 다쏘시스템사, IBM사가 서울대학교에 CAD/CAM/CAE 소프트웨어인 CATIA 20세트를 기증함과 동시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디지털항공기술혁신센터의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이자 디지털항공기술혁신센터장인 김승조 교수는 "DICAE의 설립으로 향후

디지털 항공기술 혁신센터 개소



항공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수행에 보다 앞장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조 교수는 "새로이 탄생하는 디지털항공기술혁신센터에는 사이버 설계, 제작기술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본 도구들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실제 비행체 설계, 제작을 시도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비행을 지배하는 제반 물리적 현상을 모사할 고성능, 초정밀 해석기법이 필요하고, 또한 실제 상황과 같이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가상화를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센터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기술연구소와 오랜 항공기 개발경험이 있는 다쏘항공사가 컴퓨터를 이용한 저렴한 초정밀 해석기법을 인터넷 수퍼컴퓨팅 기술을 토대로 개발하고, 다쏘시스템사와 IBM이 CATIA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센터설립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체 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최동환)에서 개발중인 다목적실용위성 2호 위성의 발사를 위한 발사체로 중국 장성공사의 장정(長征) 발사체(모델명 LM-2C)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중국 장성공사(대표: 張新俠 Zhang Xinxia)와 발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위성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지원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상도 1미터급의 고해상도 지

구관측위성으로 2004년 4월 발사될 예정이며, 고도 685km, 궤도경사각 98.13도의 태양동기 원궤도를 돌면서 한반도의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지구로 전송할 계획이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발사체 선정을 위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수행한 결과, 중국의 LM-2C 발사체가 최고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발사체의 신뢰성, 발사장 시설 및 가격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M-2C 발사체는 길이 40미터, 총중량 213톤의 발사체로서 1단과 2단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궤도진입용 상단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현재까지 총 21회 발사하여 21회 모두 성공하여, 100%의 발사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7회는 저궤도 통신위성 네트워크인 이리듐(Iridium) 위성을 발사한 바



항우연 최동환 원장(사진 오른쪽)과 중국 장성공사 대표가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까지 여러가지 모델의 장정 발사체를 사용하여 약 25회의 외국 위성을 발사한 경험이 있다.

중국내에는 시창(西昌)발사장, 주촨(酒泉)발사장, 타이위안(太原)발사장 등 3개의 위성발사장이 있으며, 다목적 실용위성 2호는 중국 남서부 시촨성(四川省)의 시창(西昌)발사장(북위 28.2도, 동경 102도)에서 2004년 4월 발사될 예정이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개발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대우중공업, 두원중공업,

한화, 대한항공, 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위성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으로는 유럽의 다국적 기업인 아스트리움(ASTRUM)사와 이스라엘의 엘롭(ELOP)사가 참여하고 있다. <항우연 정예준>

항공우주 문헌정보 원문복사 제공서비스 실시

항공우주연구원(원장 최동환)에서는 국가 항공우주 전문정보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 내·외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에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도서·학술지 DB' 내의 학술지 기사, Conference Proceedings 등에 대해서 2001년 5월 1일부터 원문복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원외(외부) 이용자들이 원문복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용자 등록후 '이용자 ID'는 담당자의 인증과정을 거쳐 E-mail로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이용방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에서 문헌정보 ->원내정보검색 ->도서·학술잡지를 선택하여 '자료유형'을 '기사'로 지정하고, 검색결과 상세화면에서 '원문복사신청'을 선택하여, 이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일반우편(500원+(100원×페이지)), 빠른우편(800원+(100원×페이지))이며, 상세한 이용방법 등은 등록된 이용자에게 수시로 E-mail로 전달할 예정이다. <항우연 정예준>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제2회 한·일 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개최예정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는 일본 (사)중부우주산업과학기술진흥센터와 공동주최로 '제2회 한·일 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을 2001년 10월 29일~30일 Nagaragawa Convention Center, Gifu, Japan(Nagoya 근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일본 항공우주기술관련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산·학·연·관간의 상호기술협력체제를 마련하고, 항공우주기술의 국내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0년 11월 경상대학교 개최에 이은 행사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연구기술 개발사례에 대한 발표와 기관홍보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에 이어 2001년 11월 1일에는 한·일 항공우주기술 교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교류회에서는 한국의 항공기산업, 우주산업, 항공우주기술 등이 소개되고 진사(진주·사천) 항공산업공단의 경상남도 유치, 일본의 항공우주산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사)중부우주산업과학기술진흥센터는 일본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인 나고야시에 소재한 통상산업성 산하의 센터로서 현재 150여개 회사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 과학기술 조사연구, 기획입안, 연구교류, 보급개발, 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임현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명	수록 내용
도서·학술지 DB	연구원에서 보유중인 도서, 기술보고서, Conference proceedings, 학술지, 학술지 기사 등이 수록
연구보고서 DB	연구원 및 국내 관련 기관에서 생산한 연구보고서 등이 수록
해외출장보고서 DB	연구원 직원의 해외출장보고서가 수록
기술자료DB	연구개발 수행과정(결과)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수록